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우부형(愚婦型) 인물의 양상과 의미\*  
- ‘연군주’와 ‘연희벽’ 숙질(叔姪)을 중심으로 -

유인선\*\*

- I. 서론
- II. <명주보월빙> 연작의 우부형 인물 양상
- III. 우부형 인물의 서사적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 한글장편소설인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우부형(愚婦型)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군주’와 ‘연희벽’ 숙질(叔姪)을 통해 우부형 인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는 ‘하원광과 연군주’의 혼인을, 후편인 <운하정삼문취록>에서는 ‘하몽성과 연희벽’의 혼인을 다룬다. 가문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원광과 하몽성이 대를 이어 우부형 인물인 연군주·연희벽 숙질과 혼인하는 설정은 흥미로운 서사 구조를 이루며, 이를 통해 우부형 인물의 서사가 전·후편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보여준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연군주와 연희벽은 각각 ‘재실’과 ‘정실’의 위치에서 ‘수용’과 ‘배제’라는 상이한 결말을 맞는다. 이는 정실과 재실의 자질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재실인 연군주는 여러 우행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순종을 통해 가문 내에 수용되지만,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409-008)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 디지털인문예술전공 겸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정실인 연희벽은 정실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편과 시가의 권위에 도전하며 갈등을 지속한 끝에 산후병으로 사망한다. 연희벽의 죽음은 정실이 자 중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소멸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조선후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실과 재실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했는지 보여준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은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등의 작품에서 주로 ‘한미한 가문 출신’의 우부형 인물을 등장시켰던 것과 달리, ‘부귀명문가 출신’의 우부형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을 각각 전·후편에서 ‘재실’과 ‘정실’로 등장시킴으로써 우부형 인물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서사적 확장을 도모한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우부형 인물을 통해 다양한 인물 형상화 및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당대 향유층의 가치관과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고전소설, 우부(愚婦), 추녀(醜女), 정실, 재실, 차별

## 1. 서론

조선후기 고전소설에는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수많은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그중에는 미색(美色)과 부덕(婦德)을 겸비한 인물도 있고, 미색은 뛰어나지만 부덕을 갖추지 못한 인물도 있다. 반면에 박색(薄色)이지만 현숙하고 사려 깊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박색이면서 성품과 행실까지 용렬한 인물도 존재한다. 대체로 고전소설에서는 미색과 부덕을 겸비한 이들이 중심인물로서 작품의 보편적인 주제의식 등을 견인해 가지지만, 이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 역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화하거나 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품 해석의 층위를 넓히는 데 일조한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에서 박색이면서 성품과 행실이 용렬한 인물들의 경우, 이들의 외모와 행동이 희화화되어 서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작품에 내재된 주제의식과 향유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박색이면서 성품과 행실이 용렬한

여성인물을 ‘우부형(愚婦型) 인물’<sup>1)</sup>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인물 형상이 두드러지는 <명주보월빙> 연작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부형 인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녀(醜女)’ 또는 ‘추모(醜貌)’의 함의,<sup>2)</sup> 개인의 소외 양상,<sup>3)</sup> 우행의 양상과 의미<sup>4)</sup>에 주목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혜란은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비교·분석하며, 이들의 추모가 문화적 취향이나 유교적 교양 등 문화자본의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sup>5)</sup> 정선희는 집단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는 가운데 시가와 며느리의 관계 및 여성의 추모와 우행을 함께 주목하였다.<sup>6)</sup> 이 외에도 여성인물의 우행이 중심가문의 관대함을 부각하는 동시에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규범을 재고하도록 한다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sup>7)</sup> 이러한 선행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우부형 인물의 성격과 특징 및 함의를 파악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에 힘입어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우부형 인물’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서사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1) 고전소설에서는 박색이면서 성품과 행실이 용렬한 인물이 한 유형을 이루는데, 이들은 외모와 성품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추녀(醜女)’ 또는 ‘우부(愚婦)’로 지칭된다. ‘추녀’의 경우 ‘현숙한 추녀’와 ‘용렬한 추녀’ 등 그 범주가 넓은 데 반해, ‘우부’는 곧 추녀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 ‘우부형(愚婦型)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3)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구선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죄벌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 - 추모 · 귀물 · 유충 · 병신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 4) 윤준섭, 『〈유씨삼대록〉의 ‘순씨’ 우행(愚行)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동방문화비교연구』 7, 동방문화비교연구회, 2017; 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愚婦型) 인물’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 : 〈유씨삼대록〉, 〈명주보월빙〉, 〈이씨효문록〉, 〈임씨삼대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발표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강우규, 『등문고를 올린 어리석은 여성들-〈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전기화,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웃음의 이면-여성 보조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4, 한국문학회, 2023.
- 5) 조혜란, 앞의 논문.
- 6) 정선희, 앞의 논문.
- 7) 윤준섭, 앞의 논문; 김동욱, 앞의 논문.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총 205권)으로 구성된 조선 후기 최장편 연작소설로서, 서사 구성 및 인물 형상화 등의 측면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성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동안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작의 범위’<sup>8)</sup> 및 ‘서사적 특징’<sup>9)</sup> 등 연작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글쓰기 방식’, ‘스토리텔링과 세계관 구축’,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 콘텐츠의 측면에서 조명되기도 했다.<sup>10)</sup> 또한 소재적 차원에서 ‘친동기간 갈등’, ‘여성수난담’, ‘혼사담’, ‘군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11)</sup> 문체의 특성에 주목한 디지털 데이터 분석 연구가 제출되기도 했다.<sup>12)</sup>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개성적인 작품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의 한 경향을 규명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 8) <명주보월빙> 연작 범위는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의 ‘2부작’으로 보는 견해와 <엄씨효문청행록>을 포함한 ‘3부작’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2부작으로 보는 경우, <엄씨효문청행록>의 중심가문이 ‘엄부’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파생작’에 가깝다고 본다면, 3부작으로 보는 경우 중심가문에 변동이 있다라도 <엄씨효문청행록>이 전작에 연원을 두고 작품적 동질성과 연계성을 보인다는 관점을 취한다. 본고에서는 중심가문과 중심인물의 연속성 등에 주목하여 2부작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이상택, 『<윤하정삼문취록> 연구 - <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동화출판사, 1981; 김진세, 『<엄씨효문청행록> 연구(一)』,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 -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문청행록>』, 일위우쾌제박사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 9)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 -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a.
- 10) 김은일,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 인물비교서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김은일·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 - <명주보월빙> 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이후남, 『요괴 서사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명주보월빙> 3부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 11)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의 친동기간 갈등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b;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서정현,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연작의 군담 연구』, 『우리말 글』 101, 우리말글학회, 2024; 이은경,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당호(堂號)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 12) 유인선·김현태, 『한글장편소설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론 -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명주보월빙> 연작은 삼대록(三代錄)과 삼문록(三門錄)이 결합된 복합 양식<sup>13)</sup>을 취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인물군상과 함께 개성적인 인물상을 부각시킨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이러한 개성적인 인물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연군주’, ‘연희벽’으로 대표되는 ‘우부형 인물’이다. 연군주와 연희벽은 <유씨삼대록>의 순씨, <임씨삼대록>의 목지란 등 다른 작품의 우부형 인물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동시에 변별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숙질(叔姪) 관계로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 ‘하원광과 연군주’의 혼인이 다루어졌다면,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하원광의 장자인 ‘하몽성’과 연군주의 친정 조카인 ‘연희벽’의 혼인이 다루어진다. 한 가문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하원광·하몽성 부자가 대를 이어 우부형 인물인 연군주·연희벽 숙질과 혼인하는 서사는 흥미를 유발하며, 연군주와 연희벽이 각각 재실(再室), 정실(正室)로서 수용과 배제라는 서로 다른 결말을 맞는 것 역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군주와 연희벽을 중심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우부형 인물의 양상을 분석하여 다른 작품들과 대비되는 특징을 밝히고,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우부형 인물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 편재한 우부형 인물들의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당대 향유층들의 의식 역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II. <명주보월빙> 연작의 우부형 인물 양상

### 1. <명주보월빙>의 연군주

： 재실(再室)로서의 우부, 남편에 대한 순응과 수용

<명주보월빙>에서 연군주는 부마도위 연수와 경안공주의 딸로서 선황제(先皇帝)의 외손녀이자 현(現) 황제의 조카라는 점에서 고귀한 신분을 지닌 인물이지만, 그녀의 부모조차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박색인데다 예의염

13) 유인선, 앞의 논문, 2021a, 184~194면.

치를 모르는 우둔한 인물로 제시된다. 그녀는 초왕의 반역을 평정하고 개선하는 하원광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 그와 “친스(親事)를 일위 빅년히로 하여 유즈싱녀(有子生女)코져 하느이다.”<sup>14)</sup>라는 말로 하원광과 혼인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이 수차례 규수의 도리에 어긋남을 들어 경계하고 꾸짖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경안공주는 마지못해 황제에게 사혼(賜婚)을 청하고 연군주는 하원광의 ‘재실’이 되어 인연을 맺게 된다. 이때 사혼은 <유씨삼대록>의 순씨, <임씨삼대록>의 목지란 등과 연군주의 서사적 위상을 구분짓는 표지로 작용한다. 연군주와 순씨, 목지란 모두 ‘재실’이지만, 순씨와 목지란이 ‘한미한 가문’ 출신이어서 가문 내 비중이 미미했다면, 연군주는 황제가 사혼을 내린 ‘부귀명문가’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서사의 향방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혼이 정해진 후 연군주는 하루바삐 택일하여 혼례를 치러달라고 재촉하는데, 연군주의 외양과 성품에 대한 묘사는 다음의 혼례식 장면에 자세히 드러난다.

길일(吉日)이 다드르미, (중략) 허다 시녀 양냥이 신부를 붓드러 덩 밧기 니니, 금스면보(錦紗面褙)를 가리와시므로 그 얼굴을 보디 못하더니, 네석(醴席)의 님 하여 면보(面褙)를 엮시하고 부뷔(夫婦) 교비(交拜)를 파하미, 금유선(錦珠扇)을 반개(半開)하니 신부(新婦)의 치장이 이목이 현황하디 그 상모의 험괴망측(險怪罔測)하미 형상기 어려오니, 우두나찰(牛頭羅刹)과 흑살천신(黑煞天神)이 나린 듯하디라. 좌각이 대경실식하여 어린드시 말을 못하더니, (중략) 신부 단장을 곁쳐 비사당(拜祠堂) 현구(見舅姑)홀 시, 흥뵈(行步) 난잡하여 청식(廳舍) 움죽이고 쉼소리 괴이하여 잠기[쟁기] 멘 쇠[牛] 소리긋터며 냥안(兩眼)의 흥 조각 영치(映彩)엮서 검고 둥글며, 냥미(兩眉) 기운 뼉뼉긋고, 너민 니마의 큰 흑이 돛고, 냥혈(兩頰)이 프르러 청화(靑華)긋고 님이 너밀며 두 귀 아리 뺨으로 흑이 달녓고 코히 놓하 큰 낫치 덩혀시며, 허리 퍼디기 안반만 하고, 쉼는 계오 십세 희아(孩兒)만 하니, 기형괴상(奇形怪狀)이 긋초 기절하디라.<sup>15)</sup>

14) 장서각본 <명주보월빙> 권53, 24면(3권, 365면).

인용문의 한자 병기는 최길용·김영숙 교감본, 『명주보월빙』1~5(학교방, 2014)을 참고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오기(誤記)를 수정하였으며, 인용문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이하 인용 시 인용문은 <작품명> 권 수, 면수(교감·교주본의 권 수, 면 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혼례식장에 선 연군주의 모습은 우두나찰같이 험상궂고 행동거지 또한 괴이하여 하객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녀는 툭 튀어나온 이마에 눈에는 영특한 빛이 없고, 두 눈썹은 거친 축발처럼 어지러운 가운데 양 뺨 역시 푸른 빛이 돌아 생기가 없으며, 입은 튀어나오고 두 귀 아래에 혹이 쌓으로 늘어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허리는 떡을 칠 때 쓰는 떡판[안반]처럼 퍼져있고, 키는 열 살 아이처럼 작은 데다 걸음걸이도 난잡하고 숨소리는 쟁기를 멘 소처럼 험뻑여 괴이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연군주의 모습은 혼례식에서 기대할 법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는 확연히 상반된 모습이다. 더욱이 신랑인 하원광이 원체 뛰어난 미남자인 데다 영웅호걸로서 못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기에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서로 걸맞지 않은 것을 애석해하며, 떠들썩해야 할 혼례식장의 분위기 역시 흥겨움이 반감된다.

머느리의 모습을 처음 본 하공은 당황하여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애써 침착함을 되찾고, “너즈는 식이 불관하고 덕이 웃듬”<sup>16)</sup>이라며, 신부가 자색(姿色)은 부족하지만 황부인[제갈량의 아내]과 맹광 같은 덕을 갖추고 ‘정실’인 윤현아와 화목하면 그 또한 아름다울 것이라며 분위기를 수습한다. 하지만 연군주는 기세 좋게 시부(媿父)인 하공의 말에 응답하며 미인의 해악을 이르고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내세운다.<sup>17)</sup> 그녀는 자신이 비록 아름답진 않지만 덕행은 태임·태사 등과 짝할 만하다며, 선황제의 외손이자 금황제의 조카인 군주라는 점을 내세워 재실이라는 이유로 하풍(下風)을 감심(甘心)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내 하공에게 방종한 뜻

15) <명주보월빙> 권53, 35~40면(3권, 369~371면).

16) <명주보월빙> 권53, 41면(3권, 371면).

17) 군궐 문과(聞罷)의 일본 신부의 슈습하는 도리업서 둥근 눈을 크게 쓰고 긴 부리를 너밀고 줄오더,

“존귀(尊舅) 식니명공(識理名公)으로 고셔를 박남(博覽)하시니 용식(容色)의 희를 물나 게 시니잇가? 하결(夏傑)의 미희(妹喜)와 은쥬(殷紆)의 달기(妯己)는 곱기로 유명하디, 그 요악 음일하미 그 나라를 망하여시니 일노 보건디 너즈의 용식이 었디 두렵디 아니리잇고? 첩이 비록 외외 불미호으나 덕행인 즉 입샤(姪姪) 반소(班昭)를 상우(尙友)호리니 가군(家君)의 원비 대가고문(大家高門) 숙네라 하시니, 첩은 선황제 외손이오, 금황제 성달이며, 승상의 친손네오, 부마도위의 일군주로 존귀하미 었디 능히 첩을 밋츠리잇가? 첩이 결단코 하풍(下風)을 감심치 아니리니, 아모커나 읍시 었디 잇논고 가르치쇼셔.” <명주보월빙> 권53, 41~43면(3권, 371~372면).

을 버리라는 훈계를 듣자, 금세 호기롭던 기세가 꺾여 통방울 같은 눈만 껌백이며 윤현아에게 재실로서의 예를 올리게 된다.

이후에도 연군주는 시시때때로 윤현아에게 맞서며 그녀를 달기나 여후, 양귀비 등에 비견하여 모욕하지만, 묵묵히 연군주의 행태를 눈감아주던 윤현아가 정색하며 정실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그녀의 행실을 지적하고 경계하자 부끄러움을 느껴 점차 윤현아를 남편 하원광만큼 존중하게 된다.

한편 연군주는 남편인 하원광에게 맹목적인 애정을 쏟고 또 그의 애정을 갈구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는 애정은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 치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현아가 출산한 후 하원광이 그녀의 산후조리를 보살피자, 연군주는 윤현아가 남긴 갱반(羹飯)을 구해 한 술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며, 잠시라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자 모친인 경안공주의 생신 연회에도 불참한다. 이에 친정에서 잔치 음식을 보내오자, 연군주는 “맛친 사름의 거동 꺾투여 술을 병지 거후로고 금은기(金銀器)의 가득이 버린 미찬(美饌)을 하나토 남기디 아니코 치국가디 드러 마시”<sup>18)</sup>며, 남편이 양보해 준 음식까지 순식간에 모두 먹어 치워 버린다. 이러한 대식가(大食家)로서의 면모는 작중에서 예의염치를 모른 채 어리석고 우둔한 연군주의 면모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식가로서의 면모는 그녀가 토사병(吐瀉病)을 앓는 것으로 이어진다. 평소 그녀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두루 돌아다니며 음식을 주워 먹는 탓에 늘 뱃병과 토사병을 앓는데, 이러한 면모는 하원광과 경씨의 혼례식 날 더욱 희화화되어 나타난다.

[연군주가] 광복(廣腹)을 치오라 하여 죽기 상과 윤태부 부인[하영주]의 만반 단슈(滿盤珍羞)를 아오로 서룟고, 몽성 등의 가젓는 과일(果實)을 다 거두고, 단육(珍肉)가진 거술 다 으스 맛친 사름꺾치 휘그러 먹다가, 문득 비 쓸는 소리 산물이 급히 나림 꺾투여 큰 방기 년혀여 년혀여 별학이 울히는 듯, 능히 꺾치디 아냐 형형식식(形形色色) 괴이흔 너음시 다 나다가, 혼 번 ‘별학’하는 소리 길게 나며 한업슨 똥을 똥니, 똥물이 즈리의 괴이며 비를 급히 알흐니, “익고” 소리 산천이 울히게 디르니, 하공 부부와 제좌(諸座) 막블히참(莫不駭慚)하여 ‘사름의 못

18) <명주보월빙> 권54, 63면(3권, 410면).



삼기미 저더도록 호고 탄호고, 윤부인과 하부인이 연시 시녀 유랑비를 불너 급히 부인을 피서가라 하니, 유모와 시녀 일시의 연시를 쓰어가며 일변으로 똥을 쳐 너니, 악취 등인의 코흘 거스리니, 하공이 즉시 밧그로 나가고, 제긱이 날이 저물기로 인하여 훗터질 시 (하략)<sup>19)</sup>

연군주는 자신과의 혼례 이후 하원광이 경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자 이를 질투하며 소동을 일으키는데, 주변 사람들이 겨우 달래어 자리에 앉히자 잔칫상의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까지 빼앗아 먹은 탓에 배탈이 난다. 결국 그녀는 하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벼락같은 소리와 함께 방귀를 끼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무수한 똥을 싼 끝에 유모와 시녀들에게 이끌려 처소로 돌아간다. 처소로 돌아온 후 연군주의 유모는 그녀를 보살피며 경계하지만, 연군주는 당일 저녁 배탈이 진정되자마자 또다시 외당(外堂)으로 나가 남편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마침 혼례식이 끝난 후 하원광의 친우(親友)들이 외당에 모여 있었는데, 어두컴컴했던 탓에 연군주는 시누이의 남편인 윤희천을 하원광으로 착각해 달려들고, 그를 놓지 않다가 윤희천의 옷소매가 찢어지고 만다. 이때 하원광이 뒤에서 나타나자 연군주는 둔한 몸으로 바빠 남편을 붙잡으려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섬돌에서 미끄러지고, 몸이 상한 것은 물론 봉관과 장신구까지 모두 깨어지자 무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에 큰 소리로 엉엉 울어버린다.<sup>20)</sup> 상황을 지켜보던 하원광은 친우들 앞에서 소란을 수습하기 위해 연군주를 좋은 말로 달래어 돌려보낸다.

하원광은 연군주의 어리석음과 추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염려를 덜고 가내를 평안히 다스리기 위해 그녀를 박대하지 않으며, 그녀가 예의엄치를 차리지 못하고 광쾌한 행동을 보여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작중에서 연군주의 우행과 병증 등이 부각되는 것과 비례하여 하원광의 우월함과 아량 역시 두드러지며, 연군주의 외모와 성품, 행실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묘사는

19) <명주보월빙> 권92, 12~13면(5권, 366~367면).

20) 연시 황홀어취하여 둔골(鈍骨)이 밧비 나리다라 초공의 소매를 붓들녀하다가 밧그러운 섬들의 것구러져 봉관(鳳冠)이 바이다며 옥패(玉佩) 찢어디른 니르도 말고, 비둔(肥鈍)코 용널 혼 몸이 두로 상하여, 붓그럽고 무류호를 곁하여 크게 소리 질너 엉엉 쳐울기를 시작하니, 그 소리 괴괴망측호를 어이 비홀 곳이 이시리오. <명주보월빙> 권92, 20면(5권, 370면).

하원광과 정실인 윤현아의 도량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그녀가 남편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다잡는 기제로 작용하며, 정실인 윤현아 또한 그녀를 포용하고 감화함으로써 가내의 평안을 다진다. 이후 연군주는 ‘하몽정’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가문 내에서의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며, 비록 어리석은 성정은 여전할지언정 가문 내에 수용되어 평안한 여생을 보낸다.

## 2. <윤하정삼문취록>의 연희벽

: 정실(正室)로서의 우부, 남편에 대한 도전과 배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전편의 연군주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은 연희벽이다. <명주보월빙>에서 부모 세대인 ‘하원광과 연군주’의 혼인이 다루어졌다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하원광의 적장자인 ‘하몽성’과 연군주의 친정 조카인 ‘연희벽’의 혼인이 다루어진다. 하부의 계승자인 하원광·하몽성 부자가 대를 이어 우부형 인물인 연군주·연희벽 숙질과 혼인하는 독특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전편에서는 우부형 인물이 재실[연군주]로 설정된 반면, 후편에서는 정실[연희벽]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후편에서 우부형 인물의 서사적 과급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연희벽은 고모인 연군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박색에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지만, 연군주와는 성격적 차이를 보인다. 연군주가 박색에 우둔할지언정 남편에게는 순종적이었다면, 연희벽은 남편의 애정을 갈망하면서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를 제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작중에서 연희벽은 친정에 귀녕(歸寧)한 연군주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하몽성에게 반한 후, 고모인 연군주의 도움으로 그와의 혼인을 도모하고 황제의 사혼을 통해 하몽성의 정실이 된다. 작중에서 연희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다음과 같이 혼인 장면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폐帑(幣帛)을 밧드러 나아오니, 족용(足容)이 난잡하고 신장이 석대(碩大)하여 팔척(八尺)을 다했었는데, 퍼진 허리 세 아릅이나 하고, 기우러진 얼굴의 뺨뺨

튼 머리털의 음잡(淫雜)은 괴운이 오로지 모혀시며, 몽괴여진 코와 푸른 입시울  
이며 주석(朱錫)은 누난 니며 귀밧희 주먹만흔 종괴(腫氣)의 농즙(膿汁)이 흐르  
는더 턱 아리 쌍혹은 큰 호박만치 느러졌고 검프란 얼굴이 엷고 밋고 무서오니,  
악흔 사름이 한번 보미 혼백(魂魄)이 니테(離體)하여 혼도(昏倒)홀지라.<sup>21)</sup>

연희벽의 모습은 연군주의 외양 묘사에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연군주가 열 살의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았던 것과 달리, 연희벽은 키가 팔척장신에 달하며 허리는 세 아름이나 될 만큼 몸집이 큰 것으로 묘사된다. 마마 자국이 남은 검푸른 얼굴에 비뚤어진 얼굴형, 몽개져 납작한 코와 푸른 입술 사이로 드러난 누런 이, 귀밑의 주먹만 한 종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모습과 턱 아래 쌍혹이 큰 호박처럼 늘어진 모습은 가히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비뚤어진 얼굴형’과 ‘귀밑의 주먹만 한 종기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얼굴’, ‘푸른 입술’과 ‘누런 이’는 생기가 없는 병적인 이미지와 장애, 게으름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연희벽에 대한 외양 묘사는 추모와 질병, 장애, 게으름이 결부된 모습으로 제시된다. 혼례식장에서 신부의 모습을 본 하객들은 아연실색하고, 하공 부부 역시 적장손인 하몽성의 혼인이 어그러진 것을 통탄하자 하원광은 ‘연희벽의 수복(壽福)이 적으니 평생 하몽성과 늙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부모를 위로한다. 혼인날 이미 그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그녀의 앞날 또한 미리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연희벽은 외모나 성품의 측면에서 고모인 연군주와 유사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연군주가 남편에게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시어머니의 항렬에 있는 고모 연군주의 위세에 기대어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뜻대로 남편을 제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희벽은 연군주를 내세워 하몽성에게 애정을 강요하며 그를 압박하고, 하몽성이 의모(義母)인 연군주를 공경하지 않아 자신까지 박대한다며 연군주의 분노를 부추긴다. 또한 하몽성이 부임지에서 새로운 여인[정월염]을 맞아오자, 질투로 분노하며 연군주를 충동질하여 집안을 소란케 하고 하몽성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극심한 불화를 빚는다.

21) <윤하정삼문취록> 권14, 47~48면(1권, 282면).

쇼연시[연희벽] 부지불각(不知不覺)에 니다라, 제 싹을 버셔 태우[하몽성의 뺨을 좇우리며, 녀성대들(厲聲大叱) 왈,

“필부(匹夫) 몽성이 무상하여 숙질지간(叔姪之間)〇[을] 죽이기로 씨하니, 가뵈(家夫)라 호고 보랄 거시 어이 이시리오? 네 아비 원광이 훈조(訓子)호는 도리 여츠(如此) 무상하니, 내 비록 몸이 녀지나 너갓튼 불인(不人)을 보면 아조 죽여 업시호고 시브니, 엇지 소탄(所天)이라 흐리오?”<sup>22)</sup>

연희벽은 새로운 여인의 처소에 찾아가 그녀를 꾸짖고 난타하는 한편 남편인 하몽성에게도 달려들어 신발짝으로 뺨을 때리고 시부모를 모욕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외면할수록 더욱더 남편을 위세로 누르려 함으로써 반발심을 사고, 정실의 신분으로 남편의 다른 부인들을 질투해 매질하는 등 패악을 부린다. 이는 연군주가 거듭되는 우행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경하며 순종적이었던 것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연희벽과 극심한 갈등을 빚던 하몽성은 결국 화병(火病)으로 미친 척하며 연희벽을 난타해 분한(憤恨)을 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가문 내 입지에 불안해하던 연희벽은 ‘딸’을 출산하자 요승과 결탁해 타문(他門)의 남자아이를 납치하고,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고 속여 납치한 아이를 하부의 종손으로 세우려 한다. 하지만 산후병으로 쇠약해진 연희벽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몸져누운 사이 진상이 드러나고, 연희벽은 자신을 찾아보지 않는 하몽성을 그리워하다 급기야 지난날 그와 부부로 맺어진 것을 후회하고 원망한다.

연시 본디 흉완협독호미 연연(軟軟) 약녀지(弱女子) 아니라. 혼혼(昏昏)이 인스를 바렷다가도, 혼몽중(昏夢中) 씨씨 섬어(讒語) 가온디, 오미(寤寐)의 밋치이고 일념의 낫지 아니호는 바는 티우[하몽성의 화풍경운지상(和風慶雲之象)이라. 눈 곳 감으면 하티우의 흐억이 죠흔 풍신이 눈 압히 영지고, 청월호상(淸越豪爽)호성음이 귀가의 징정하니, 정신을 저기 찰힌 즉 혼조 말노 어즈러이 췌어려 니락는 말이 다 하티우의 신상이라.

“이고 이고 하몽성 슈인(讐人)이 나 연시 희벽과 전실의 무슴 원가(怨家)완디,

22) <윤하정삼문취록> 권19, 71~72면(1권, 381면).

그 풍신 지모는 혈육지신으로 삼겼것만은 그되도록 괴특이 삼겨 너 눈의 드러던 고? 슈인의 풍치 문한이 그되도록 너 눈의 드지 아니 하던들, 우리 연궁의 문지가 벌(門地家閭)과 부귀 위세로써 어느 곳의 한낫 옥인 가랑이 업서, 너 몸이 니제 단장초스(斷腸焦思) 하기의 밋츠리오? 원간 필부의 쇼항이 무도(無道) 경박(輕薄) 하여 무신불의지인(無信不義之人)인 줄이야 너 엇지 알니오? (중략) 너 니제 필부로 하여 병이 고향(膏肓)의 드리 죽기를 당하여시니, 모진 귀신이 되어 몽성 필부와 덩·표·상 세 요물을 무러 너호러 죽여 성전의 그 고기 맛아을 보지 못흐 원슈를 갓흐리라.”<sup>23)</sup>

연희벽의 지극한 애정은 지독한 원망으로 변하고, 그녀는 죽은 후 귀신이 되어 하몽성과 적국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다. 하몽성의 철저한 외면과 멸시가 그녀로 하여금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품게 만든 것이다. 연희벽은 용쓰며 죽는 순간까지 원망과 분한을 씻지 못하고, “니 비록 죽으나 천디하(泉臺下)의 음혼(陰魂)이 반드시 훗허지지 아니하여, 모진 귀신이 되어 하몽성 호식(好色) 무신(無信) 필부와 덩녀 요인(妖人)의 살점을 무러 너호러, 나 연희벽이 저희 슈인(讎人)으로 하여 단장초스(斷腸焦思)하는 원슈를 갓고 말니라.”<sup>24)</sup>라고 말한 후 숨을 거둔다. 결국 하몽성의 비정함이 연희벽으로 하여금 생전의 마지막 유언조차 복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연희벽은 죽음으로써 하원광의 정실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후 하부의 중부 자리는 현숙한 다른 여인[정월염]에게로 돌아간다. 또한 그녀의 딸[하성아] 역시 다른 부인의 소생으로 자라게 되면서 연희벽의 존재는 철저히 하부에서 지워진다.

### III. 우부형 인물의 서사적 의미

#### 1. 정실의 자질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차별의식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근주와 연희벽 숙질을 통해 우부형 인물을 반복

23) <윤하정삼문취록> 권58, 70~73면(3권, 293~294면).

24) <윤하정삼문취록> 권61, 45~47면(3권, 344면).

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각 ‘재실’과 ‘정실’이라는 신분을 부여하고, ‘수용’과 ‘배제’라는 상반된 결말을 부여함으로써 서사를 변주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정실의 자질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정실과 재실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연군주는 하원광의 재실로서 그녀가 가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하원광은 혼인 당시 연군주의 성품을 염려하는 부친에게 “연시 위인을 슷치오니 추용누달(醜容陋質)이 비위(脾胃) 약흔 늑는 견디여 보기 어렵습거니와 간교흔 인물은 아니라 넘너는 업도소이다”<sup>25)</sup>라며 부친을 안심시키고, “상두의 윤시 이셔 니스를 찰임(察任)하니 저런 거손 식통(食蟲)으로 혼 구석의 드리쳐 두어 무방타”<sup>26)</sup>라며 개의치 않고 그녀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정실부인인 윤현아가 가문의 정치적 위기와 고난을 함께 극복하며 가문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sup>27)</sup> 정실인 윤현아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연군주는 집안의 한구석에 용납할 만한 존재, ‘식충’으로 치부되는데, 이는 그녀가 아내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부족한데다 재실이기에 그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중에서 연군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거나 식탐을 부리는 등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여러 차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희화화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우행으로 인해 소동을 일으킬지언정 가문 내에 큰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은 일으키지 않으며, 무엇이든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연군주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순종으로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상쇄하며, 훌륭한 품성을 갖춘 아들[하몽징]을 둬으로써 가문 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재실이 남편과의 관계 유지에 좀 더 중점을

25) <명주보월빙> 권53, 47면(3권, 374면).

26) <명주보월빙> 권53, 48면(3권, 375면).

27) <명주보월빙>에서 하부의 서사는 ‘정치적인 위기와 고난 극복’으로 압축된다. 명망이 높았던 하부는 하루아침에 역적 누명을 쓰고 직장자를 비롯해 3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는다. 하공은 목숨을 부지한 막내아들 하원광과 함께 축 명으로 유배되고, 하원광과 혼인한 윤현아 역시 유배지에서 시부모를 봉양하며 고난을 함께 한다. 이후 간신들의 죄상이 밝혀지고 하부의 억울함도 신원되자, 하원광은 관직에 올라 수차례 전공을 세워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윤현아 역시 가내를 안정시킴으로써 하부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됨으로써 가문 내에 수용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연희벽의 서사는 그녀가 하원광의 장자이자 하부의 종손인 하몽성의 정실이 된다는 점에서 ‘정실의 자질 문제’, 나아가 ‘종부의 자질 문제’라는 좀 더 심화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조선후기에 가부장제와 종법제<sup>28)</sup>가 강화되면서 종부는 종손과 함께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종가(宗家)는 종손만이 아니라 종부가 함께 존재해야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sup>29)</sup> 특히 가문의 종통을 잇고 제사를 받들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奉祭祀接客]은 종부의 권한이자 의무로 여겨졌으며,<sup>30)</sup> 종부는 남편의 사후 후사가 없을 경우 입후권을 행사하여 종통을 잇도록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sup>31)</sup>

이러한 점에서 연희벽은 정실이자 종부로서 재실이었던 연군주보다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러한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가내에 크고 작은 분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의 학자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한 집안의 흥망이 부녀자의 행실에 달렸다’며 <한씨부훈(韓氏婦訓)>을 저술하였는데, 총 11개의 덕목 중 ‘부모와 시부모 섬기기’, ‘가장 섬기기’를 제일 앞에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32)</sup>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의 권위는 가문의 질서와 당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었으며, 관습을 철저히 지

28) 조선후기에 가부장제가 공고해진 동인으로 마르티나 도이힐러 등의 학자들은 ‘신유학의 정착’을 꼽으며 ‘상속’과 ‘제사’, ‘입양’ 등이 종법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요한 방법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이훈상 역, 너머북스, 2013, 18~22면;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 조선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김혜정 역, 일조각, 2000, 171~178면).

29) 이순구, 『조선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여성학 역사』 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63면.

30) 이이효제,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69면.

31) 김보람, 『조선 후기 종부권의 성격과 의미-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에 대한 예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120~125면.

32) <한씨부훈(韓氏婦訓)>은 한원진이 집안 여성들에게 부녀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글로,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총설, ②부모와 시부모 모시기, ③가장 섬기기, ④형제와 동서 대하기, ⑤자식과 며느리 가르치기, ⑥첩 대하기, ⑦비복 다스리기, ⑧집안일 하기, ⑨손님 대접하기, ⑩제사 지내기, ⑪부덕 지키기]. 구체적이고 세세한 행실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원론적으로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보고사, 2010, 21~48면).

키는 것은 당대 여성의 과업이자 막중한 의무이기도 했다. 그 까닭은 이것이 곧 왕조의 흥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33)</sup>

따라서 연희벽이 시댁과 남편을 모욕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그녀가 당대 사회와 가문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희벽은 남편과의 극렬한 갈등으로 인해 가문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산후병으로 쇠약해져 죽음을 맞는 것으로 물러난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실이자 종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소멸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연군주와 연희벽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정실과 재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차별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군주는 재실로서 여러 우행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순종을 통해 부족한 덕목을 상쇄할 수 있었지만, 연희벽은 정실이자 종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남편과 시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등 당대의 사회 질서에 대항했기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실과 재실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당대의 여성들에게 요구된 도덕적 자질과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 2. 우부형 인물 형상의 다변화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에서 우부형 인물은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설정되며, 심각한 박색에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유씨삼대록>의 순씨나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대표적인 우부형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작중에서 순씨와 목지란은 ‘재실’로서 빈한한 친정 배경으로 인해 상층의 문화적인 취향과 유교적 소양을 체득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어리석은 품성과 행동으로 인해 회화화되며 소외되는 것으로 서술된다.<sup>34)</sup> 즉 이들의 추모와 우행의 근거를 빈한한 친정 배경에서 비롯된

33)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의 책, 316~317면.

34) 조혜란, 앞의 논문, 509~514면.



문화자본의 결핍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은 한미한 가문 출신의 우부형 인물들이 등장했던 것과 달리 부귀명문가 출신의 우부형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우부형 인물을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연군주와 연희벽은 충분한 문화자본을 갖춘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소양을 체득하지 못하고 식욕과 색욕 등 본능적 욕망에 취약하며 예의엄치를 차리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부형 인물의 성격을 출신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하고 전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롭고 개성적인 인물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과 후편을 통해 가문 내 우부형 인물의 지위 설정에 변화를 줌으로써 우부형 인물의 서사를 확장하고 변주한다. 연군주와 연희벽 모두 부귀명문가 출신이라는 설정하에 전편에서는 연군주를 ‘재실’로 설정하고, 후편에서는 연희벽을 ‘정실’로 설정한 것이다. 작중에서 연군주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남편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이며 순종하는 등 우부형 인물 형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 다만 <유씨삼대록>과 <임씨삼대록> 등의 작품에서 재실인 우부형 인물들이 자녀를 두지 못하거나 ‘딸’을 출산하는 것과 달리, 연군주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가문 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의 여성들에게 자녀의 유무, 특히 아들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 혼인을 통해 다른 가문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과 달리 아들은 가문 내 중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친을 봉양하고 보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군주의 인물 형상화는 일반적인 우부형 인물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출신 가문과 아들의 존재를 부각함으로써 변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후편에서 연희벽은 우부형 인물의 서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중에서 연희벽은 ‘정실’이자 하부의 ‘종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지만, 남편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가문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sup>35)</sup>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친정

35) 이와 관련하여 <조씨삼대록>의 ‘조후염’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조후염은 평진왕 조무와 금선공주의 딸로서 심각한 추모에 다소 흉악한 성정을 지닌 인물로 연희벽과 유사한 성격을

의 위세를 들어 남편을 제압하려 하며, 남편의 다른 부인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 또한 ‘딸’을 출산한 후에는 요승(妖僧)과 결탁해 준수한 남자아이를 납치하고,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였다고 속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연희벽의 서사는 남편과의 부부갈등, 처첩갈등을 자세히 다루며, 타문(他門)의 남자아이를 하부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종통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 외에도 그녀가 산후병으로 죽은 후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귀신으로 나타나는 점 등 연희벽의 서사는 일반적인 우부형 인물의 서사에서 나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서사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전편의 연군주와 일반적인 우부형 인물들의 서사가 비교적 단편적·주변적인 에피소드로 활용되었다면, 연희벽의 서사는 정실이자 중부라는 그녀의 지위와 맞물려 좀 더 심층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양한 갈등을 다룸으로써 서사적 확장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우부형 인물을 통해 다양한 인물 형상화 및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모색하던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우부형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한글장편소설에 편재한 우부형 인물들의 다층적인 면

---

보인다. 그녀는 혼인하여 ‘정실’의 지위를 획득하지만, 친정의 권세를 앞세워 남편을 억압하고 패악질을 부리며 충들을 빚는 등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친정으로 출거된 후 조후염의 서사는 연희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조후염이 출거된 후 모든 진상을 알게 된 평진왕이 3년간 그녀를 깊은 곳에 가두고 혼계함으로써 부덕을 갖춘 여인으로 교화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후염은 ‘우부형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유순한 인물이 되어 남편과 화락하며 평안한 여생을 보낸다. 이처럼 조후염이 연희벽과 전혀 다른 결말을 맞는 것은 연희벽이 중심가문의 ‘며느리’였던 것과 달리 조후염은 중심가문의 ‘딸’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중심가문의 자손인 경우 적극적으로 교화하여 유교적 규범에 맞는 인물로 거듭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배제의 대상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심가문과 주변가문에 대한 한글장편소설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모를 파악하고, 당대 향유층의 의식을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군주와 연희벽 속질을 통해 우부형 인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는 ‘하원광과 연군주’의 혼인을 다루며,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하원광의 장자인 ‘하몽성’과 연군주의 친정 조카인 ‘연희벽’의 혼인을 다룬다. 한 가문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하원광·하몽성 부자가 대를 이어 우부형 인물인 연군주·연희벽 속질과 혼인하는 서사는 흥미를 유발하며, 이는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등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연군주와 연희벽은 각각 ‘재실’과 ‘정실’로서 ‘수용’과 ‘배제’라는 상이한 결말을 맞는데, 이는 정실과 재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차별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군주는 재실로서 여러 우행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순종을 통해 부족한 덕목을 상쇄할 수 있었지만, 연희벽은 정실이자 종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남편과 시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등 당대의 사회 질서에 대항했기에 배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희벽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실이자 종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소멸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조선후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실과 재실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했는지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명주보월빙> 연작은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등에서 한미한 가문 출신의 우부형 인물이 등장했던 것과 달리 부귀명문가 출신의 우부형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우부형 인물을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연작의 전·후편을 통해 서사적 확장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우부형 인물을 통해 다양한 인물 형상화 및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부형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당대 향유층들의 가치관과 의식을 함께 드러낸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최길용·김영숙 교주, 『교감본 명주보월빙』 1~5, 학교방, 2014.

최길용 교주, 『교주본 윤하정삼문취록』 1~5, 학교방, 2015.

### 2. 단행본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이훈상 역, 너머북스, 2013.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 조선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김혜정 역, 일조각, 2000.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보고서, 2010.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올아카데미, 2003.

### 3. 논문

강우규, 「등문고를 올린 어리석은 여성들-〈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5~29면.

구선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죄벌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추모·귀몰·유충·병신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77~109면.

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愚婦型) 인물’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 : <유씨삼대록>, <명주보월빙>, <이씨효문록>, <임씨삼대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학술대회발표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411~425면.

김보람, 「조선후기 중부권의 성격과 의미-중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에 대한 예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115~143면.

김은일,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 인물비교서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11~143면.

김은일·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명주보월빙〉 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91~226면.

김진세,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一)」,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100~119면.

서정현,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연작의 군담 연구」, 『우리말 글』 101,

우리말글학회, 2024, 173~218면.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 -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a, 1~231면.

\_\_\_\_\_, 『<명주보월빙> 연작의 친동기간 갈등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b, 217~248면.

유인선·김현태, 『한글장편소설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론-<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75~200면.

윤준섭, 『<유씨삼대록>의 ‘순씨’ 우행(愚行)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동방문학비교연구』 7, 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7, 67~87면.

이상택, 『<윤하정삼문취록> 연구 - <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337~357면.

\_\_\_\_\_,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120~129면.

이순구, 『조선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37~66면.

이은경,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당호(堂號)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149~181면.

이후남, 『요괴 서사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명주보월빙> 3부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85~297면.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309~342면.

전기화, 『<현씨양옹쌍링기>에 나타난 웃음의 이면-여성 보조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4, 한국문학회, 2023, 163~196면.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면.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11면.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83~518면.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273면.

\_\_\_\_\_, 『<명주보월빙> 연작 - <명주보월빙> · <윤하정삼문취록> · <임씨효문청행록>』, 일위우쾌제박사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131~1168면.

Aspects and Meaning of the Foolish Wife Character Types  
in the Series of *Myeongju Bowolbing*  
- Focusing on 'Yeon princess' and 'Yeon Hui-byeok' -

Yoo, Inseon

This study explores the portrayal and narrative significance of the “foolish wife” (愚婦型) character type in the *Myeongju Bowolbing*(明珠寶月聘) series, a classic Korean novel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eries repeatedly presents this character type through the figures of Yeon Princess and Yeon Hui-byeok. In the first part, *Myeongju Bowolbing*, the focus is on the marriage between Ha Won-gwang and Yeon Princess, while the second part, *Yunbejeong Sammun Chuurok*(尹河鄭三門聚錄), examines the marriage between Ha Mong-seong and Yeon Hui-byeok. The narrative, which shows two generations of prominent male heirs marrying “foolish wives,” adds complexity and illustrates the evolution of this character type throughout the series.

In the series, Yeon Princess holds the status of a “secondary wife,” while Yeon Hui-byeok occupies the role of the “primary wife,” leading to different outcomes of acceptance and exclusion. This reflects the conservative and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the roles of primary and secondary wives. Despite her foolishness, Yeon Princess is accepted into the family due to her love and obedience toward her husband. In contrast, Yeon Hui-byeok, lacking the qualities expected of a primary wife and consistently challenging her husband’s authority, experiences ongoing conflict and eventually dies of postpartum illness. Her death symbolizes how women who fail to meet the expectations of a primary wife and Matron of the household are excluded and erased in a patriarchal society, while also illustrating the differential expect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wives in late Joseon society.

Moreover, unlike other works such as *Yusi Sandaerok*(劉氏三代錄) and *Imssi Sandaerok*(林氏三代錄), which depict foolish wives from humble backgrounds, *Myeongju Bowolbing* portrays foolish wives from prestigious families, offering a more

nuanced interpretation. The series also demonstrates narrative expansion and variation across its two parts. Through its depiction of the “foolish wife,” *Myeongju Bowolbing* reveals diverse character portrayals and new narrative possibilities, while also reflecting the values and consciousness of its readers from that era.

Keywords : *Myeongju Bowolbing*(明珠寶月聘), *Yimbajeong Sammun Chuirok*(尹河鄭三門聚錄), Korean classical novel, foolish wife, ugly woman, legal wife, secondary wife, discrimination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게재결정: 2024. 11. 10.

